# 전기차/배터리

## 미국 전기차 판매 추정치 하향
## 트럼프 당선되면 추가로 하향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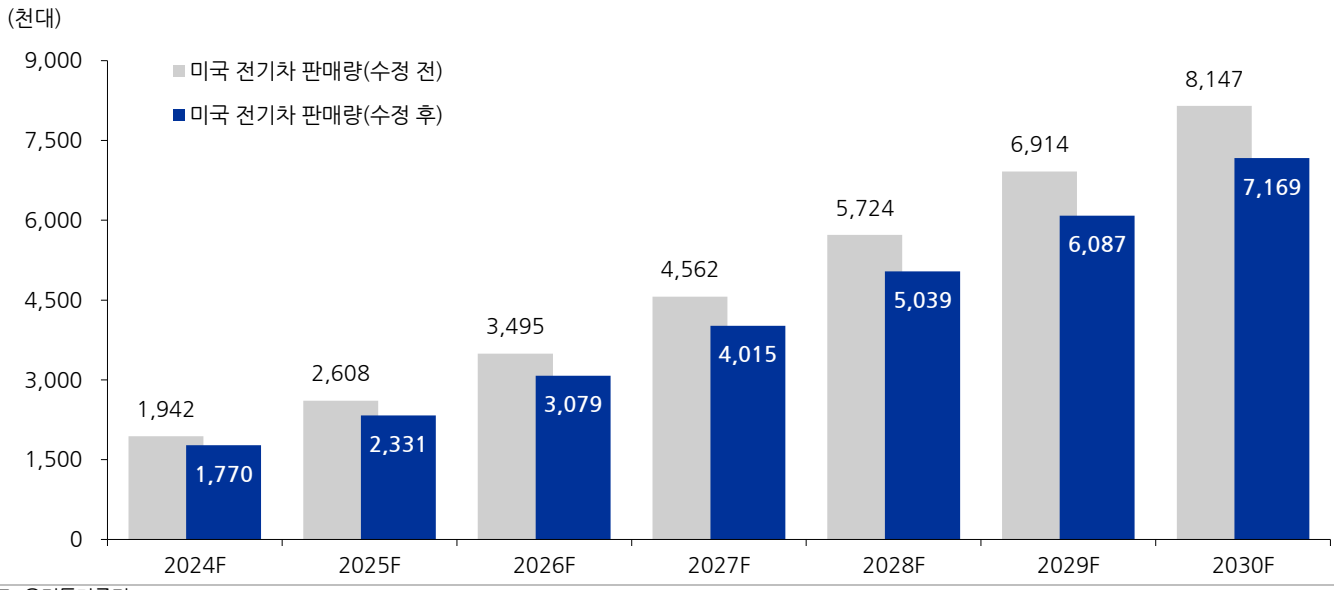
### 전기차 산업 포인트

미국의 6 월 전기차 판매는 2020 년 8 월 이후 첫 역성장세 기록. 정책 후퇴에 따른 하이브리드 강세와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낮은 점 감안해 미국 전기차 판매 예상치를 기존 대비 9~12% 추가 하향

Green Industry 한병화_ 02)368-6171_ bhh1026@eugenefn.com

- 2024~2030년 미국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기존 대비 9~12% 하향
- 테슬라 수요 부진, GM, 포드의 중장기 전망 달성의 낮은 가시성, 바이든 정부의 정책 후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이동하는 것 반영
- 트럼프 당선되면 임기 내 전기차 판매 추정치 추가로 하향 불가피. 연비규제의 철폐 2025년에 확정 예상
- 미국의 6월 전기차 판매 2020년 8월 이후 첫 역성장. 누적 판매 71.8만대로 하향된 추정치 달성도 쉽지 않아
- 반면 6월 누적 하이브리드 판매는 71.2만대로 전년비 35.4% 급증, 전기차 판매 증가율 8.1% 압도
- 하반기 신규모델 출시 효과 예상되나, 기존 모델들의 판매 부진으로 연간 판매 성장 눈높이 지속 하향되고 있어
- 정책 금리 하향은 긍정적이나, 실업률 상승, 소비자 구매 심리 하락 등이 동시에 진행 중으로 수요 확대 영향 미미
-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성장 눈높이 낮아지는 것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부정적. 정책 금리인하로 인한 섹터별 머니 무브로 일시적인 주가 반등은 가능하나, 추세적인 반전 위해서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회복이 필수. 밸류에이션 추가 하락 여력이 낮은 업체들 위주로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도표 1. **미국 전기차 판매 추정치 하향**




자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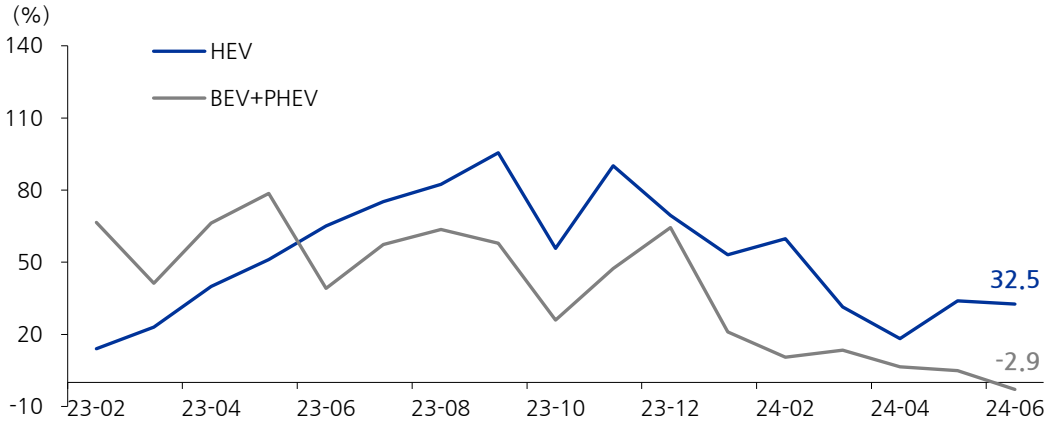
**미국 6 월 판매 역성장 기록**

미국의 6 월 전기차 판매는 12 만대로 전년 대비 3.8% 역성장했다. 순수전기차는 9.7 만대로 전년비 5.7% 감소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8% 성장에 그쳤다. 테슬라, 폭스바겐, 메르세데스의 부진이 지속되었고, 스텔란티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판매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일반 하이브리드는 13.4 만대로 전년비 32.5% 급증했다. 6 월 누적 전기차 판매는 71.8 만대로 전년비 8.1% 증가에 그쳤다. 이를 반영해서 2024 년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기존의 194.2 만대에서 177.7 만대로 하향했다. 하반기 신규 모델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 수치이나, 낮아진 수치를 달성하려면 신규 모델들 중 베스트셀링카가 탄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브리드 강세 뚜렷, 트럼프 리스크도 고려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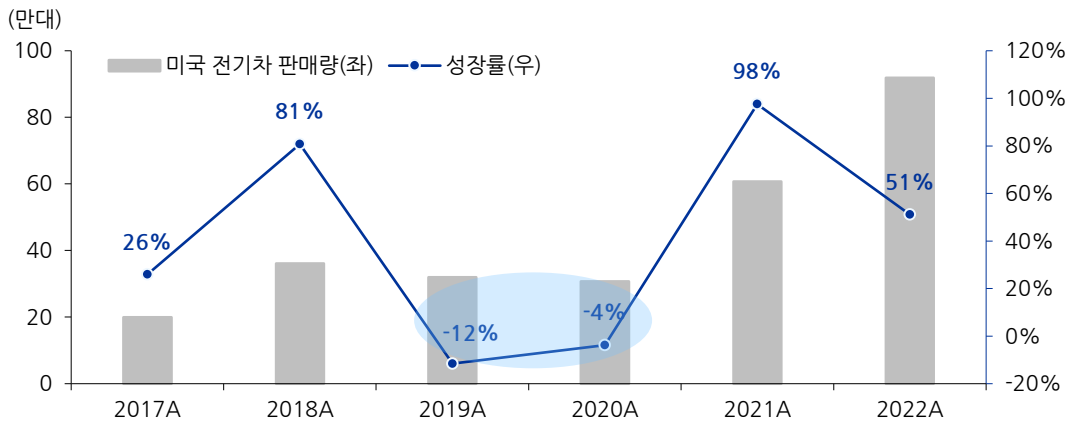
유럽에 이어 미국도 하이브리드카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해 느낀 여러 가지의 부족함을 이유로 하이브리드 선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전시킬 방법은 정부의 정책 개입이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이기 때문에 판매를 억제하는 연비규제, 세금 부과 등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EU 와 미국의 정책은 실망스럽게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EU 의 최대 다수당인 EPP 는 2035 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조정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는 강력한 EURO7 의 도입을 2030 년으로 연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하이브리드의 역할을 확대한 연비규제를 확정했다. 이를 반영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기존 대비 9~12% 하향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 된다면 그의 재임 기간내의 전기차 판매는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과거 트럼프 1 기때 연비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2 년간이나 역성장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첫 해에 바이든의 연비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다.

도표 2.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 성장률 강세 뚜렷**




자료: Argonne, 유진투자증권

도표 3. **트럼프 첫 재임기간에 전기차 시장 2 년간 역성장**




자료: 유진투자증권

**배터리 관련주 주가 반전이 추세적이려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 회복해야**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정책금리 하향에 대한 기대로 배터리 관련주의 주가 반등이 있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금리의 하락에 따른 머니무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 금리 하향은 실업률 상승과 소비자 구매 심리가 냉각되는 것을 근거로 시행되는 초기 국면이다. 따라서 금리 하향이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견인하기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터리 업체들의 기조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시 확장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한 것을 감안하면 미 대선 이후는 되어야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피하고, 추가 하락 여지가 낮은 종목들로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표 4.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 (천대) | 2022A | 2023A | 2024F | 2025F | 2026F | 2027F | 2028F | 2029F | 2030F |
|---|---|---|---|---|---|---|---|---|---|
| 북미 전기차 판매량 | 1,042 | 1,621 | 2,007 | 2,622 | 3,440 | 4,456 | 5,578 | 6,746 | 7,973 |
| 미국 전기차 판매량 | 918 | 1,436 | 1,770 | 2,331 | 3,079 | 4,015 | 5,039 | 6,087 | 7,169 |
| YoY(%) | 51.2 | 56.3 | 23.2 | 31.7 | 32.1 | 30.4 | 25.5 | 20.8 | 17.8 |
|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 6.4 | 8.9 | 10.7 | 13.7 | 17.6 | 22.6 | 27.8 | 32.9 | 38.0 |
|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 124 | 185 | 238 | 291 | 361 | 441 | 539 | 659 | 804 |
|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 6,229 | 8,515 | 10,567 | 12,479 | 14,559 | 16,736 | 18,947 | 20,845 | 22,508 |
| 중국 전기차 판매량 | 5,924 | 8,095 | 10,039 | 11,816 | 13,724 | 15,679 | 17,609 | 19,127 | 20,272 |
| YoY(%) | 83.7 | 36.6 | 24.0 | 17.7 | 16.2 | 14.2 | 12.3 | 8.6 | 6.0 |
|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 22.1 | 26.9 | 32.4 | 37.0 | 41.7 | 46.3 | 50.5 | 53.2 | 54.8 |
| 일본 전기차 판매량 | 55 | 84 | 122 | 176 | 255 | 373 | 535 | 765 | 1,090 |
| YoY(%) | 30.0 | 53.6 | 45.3 | 43.7 | 44.8 | 46.2 | 43.6 | 43.0 | 42.5 |
|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 1.2 | 1.8 | 2.5 | 3.6 | 5.1 | 7.3 | 10.3 | 14.4 | 20.1 |
| 기타 아시아 총합 | 499 | 671 | 810 | 975 | 1,159 | 1,367 | 1,607 | 1,908 | 2,294 |
| 유럽 전기차 판매량 | 2,602 | 3,075 | 3,308 | 3,722 | 4,194 | 4,735 | 5,357 | 6,173 | 7,092 |
| YoY(%) | 15.1 | 18.1 | 7.6 | 12.5 | 12.7 | 12.9 | 13.1 | 15.2 | 14.9 |
|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 22.3 | 23.1 | 24.3 | 26.8 | 29.6 | 32.8 | 36.4 | 41.1 | 46.3 |
|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 218 | 480 | 623 | 798 | 997 | 1,227 | 1,472 | 1,737 | 2,033 |
|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 79,475 | 87,242 | 89,860 | 92,556 | 95,332 | 97,239 | 99,184 | 101,167 | 103,191 |
| YoY(%) | (1.1) | 8.0 | 3.0 | 3.0 | 3.0 | 2.0 | 2.0 | 2.0 | 2.0 |
|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 10,091 | 13,689 | 16,505 | 19,622 | 23,190 | 27,153 | 31,354 | 35,502 | 39,606 |
| YoY(%) | 55.0 | 35.7 | 20.6 | 18.9 | 18.2 | 17.1 | 15.5 | 13.2 | 11.6 |
|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 12.7 | 15.7 | 18.4 | 21.2 | 24.3 | 27.9 | 31.6 | 35.1 | 38.4 |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 당사 투자의견 비율(%) |
|---|---|---|
| · STRONG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 0% |
| ·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 95% |
| · HOLD(중립)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 4% |
| · REDUCE(매도)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 1% |

(2024.06.30 기준)